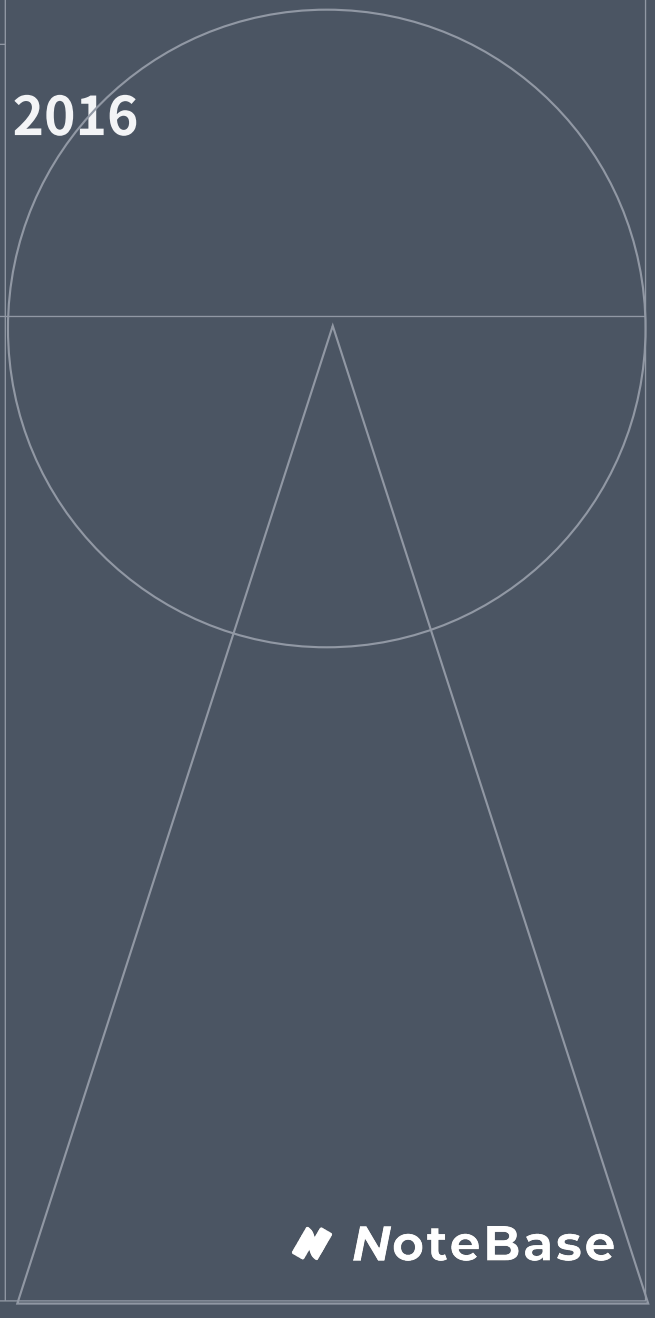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16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16

문 1. 띄어쓰기가 잘못된 문장은?

① 이제 봄이 옵니다그려.

② 집에서처럼 그렇게 해야겠지?

③ 사과하고 배하고는 과일입니다.

④ 나가면서 까지도 말썽을 피우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사와 어미의 띄어쓰기 원칙을 적용하여 잘못 띄어 쓴 문장을 찾는 문제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어미도 앞말에 붙여 쓴다.

핵심 개념

조사는 체언이나 어미 뒤에 붙어 문법 관계나 특별한 뜻을 더하는 말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어미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는 말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이 문항에서는 '처럼, 하고, 는, 까지도'가 붙여 쓰기의 판단 기준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옵니다그려'의 '그려'는 앞의 '옵니다'에 붙는 종결 표현이므로 붙여 쓴 것이 맞다.
② O: '집에서처럼'의 '처럼'은 조사이므로 앞말 '집에서'에 붙여 쓴 것이 맞다.
③ O: '사과하고', '배하고는'에서 '하고'와 '는'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 것이 맞다.
④ X: '나가면서 까지도'에서 띄어 쓴 '까지도'가 잘못되었다. '까지도'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나가면서까지도 말썽을 피우고 있다.'로 쓴다.

오답 포인트

④의 '까지도'는 '나가면서' 뒤에 덧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므로 띄어 쓰는 의존 명사가 아니다. 조사라는 점을 놓치면 '나가면서 까지도'처럼 잘못 띄어 쓰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처럼, 하고, 는, 까지, 도’처럼 앞말에 문법적 뜻을 더하는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용언 활용형 뒤에 붙더라도 조사는 띄어 쓰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조사와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쓴다: 나가면서까지도, 집에서처럼.

NoteBase

문 2. 밑줄 친 단어 가운데 품사를 바꾸어 주는 접사가 포함된 것은?

① 그 남자가 미간을 좁혔다.
② 청년이 여자의 어깨를 밀쳤다.
③ 이 말에 그만 아버지의 울화가 치솟았다.
④ 나는 문틈 사이에 눈을 대고 바깥을 엿보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접사가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접사는 어근에 붙어 새 말을 만드는 형태소이다. 접두사는 보통 뜻을 더할 뿐 품사를 바꾸지 않으며, 접미사 중에는 품사를 바꾸는 것이 있다. '좁다'는 형용사이고, 여기에 접미사 '-히-'가 붙은 '좁히다'는 동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좁혔다'의 기본형은 '좁히다'이다. 형용사 '좁다'에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붙어 동사 '좁히다'가 되었으므로, 품사를 바꾸어 주는 접사가 포함되어 있다.
② X: '밀쳤다'의 기본형 '밀치다'는 동사 '밀다'와 '치다'가 결합한 합성 동사이다. 틀린 표현은 '품사를 바꾸는 접사가 포함된 말'이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두 동사가 결합한 합성 동사이다.
③ X: '치솟았다'의 기본형 '치솟다'에서 '치-'는 동사 '솟다'에 붙어 뜻을 강조하는 접두사이다. 틀린 표현은 '품사를 바꾸는 접사가 포함된 말'이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동사의 품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접두사가 포함된 말이다.
④ X: '엿보았다'의 기본형 '엿보다'에서 '엿-'은 동사 '보다'에 붙어 '몰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틀린 표현은 '품사를 바꾸는 접사가 포함된 말'이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동사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 접두사가 포함된 말이다.

오답 포인트

②·③·④에도 결합 형태가 보인다는 점이 함정이다. 합성어의 어근 결합과 접두사의 뜻 추가는 품사 전환이 아니며, ①처럼 형용사 '좁다'가 동사 '좁히다'로 바뀌는지를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낱말의 기본형을 찾고, 접사를 뺀 어근의 품사와 접사가 붙은 낱말의 품사를 차례로 비교한다. 품사가 달라지면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이고, 뜻만 더해지거나 어근끼리 결합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접두사: 뜻 추가, 품사 유지 / 품사 전환: 접미사에 주로 나타남. 좁다(형용사) → 좁히다(동사)이다.

NoteBase

문 3. 단어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암팡지다 - 몸은 작아도 힘차고 다부지다.

② 음전하다 - 말이나 행동이 음흉한 데가 있다.

③ 객쩍다 - 말이나 하는 짓이 실없고 싱겁다.

④ 흰소리 - 터무니없이 자랑으로 떠벌리거나 거드럭거리며 허풍을 떠는 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낱말의 정확한 뜻풀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음전하다와 음흉하다처럼 소리가 비슷해 보이는 낱말의 뜻을 구별해야 한다.

핵심 개념

암팡지다는 몸은 작아도 힘차고 다부진 상태를 뜻한다. 음전하다는 말이나 행동이 얌전하고 점잖은 상태를 뜻한다. 객쩍다는 말이나 하는 짓이 실없고 싱거운 상태를 뜻한다. 흰소리는 터무니없이 자랑하며 허풍을 떠는 말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암팡지다'는 몸은 작아도 힘차고 다부지다는 뜻이므로 풀이가 맞다.
② X: '음전하다'는 말이나 행동이 얌전하고 점잖다는 뜻이다. '말이나 행동이 음흉한 데가 있다'는 뜻풀이는 음전하다에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음흉한 데가 있다' → 올바르게는 '얌전하고 점잖다'이다.
③ O: '객쩍다'는 말이나 하는 짓이 실없고 싱겁다는 뜻이므로 풀이가 맞다.
④ O: '흰소리'는 터무니없이 자랑으로 떠벌리거나 거드럭거리며 허풍을 떠는 말을 뜻하므로 풀이가 맞다.

오답 포인트

②는 '음전하다'의 '음'을 보고 '음흉하다'와 연결하기 쉽다는 점이 함정이다. 음전하다는 부정적인 음흉함이 아니라 얌전하고 점잖은 태도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낯선 낱말은 뜻풀이의 태도 방향부터 확인한다. '점잖다·얌전하다'는 긍정적·단정한 태도이고, '음흉하다'는 속이 검고 꺼림칙한 태도이므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없다.

암기 포인트

음전하다=얌전하고 점잖다, 음흉하다=속이 검다로 구별한다.

NoteBase

문 4. 한자어의 뜻을 잘못 풀이한 것은?

① 捷徑 – 지름길

② 順延 – 순수한 인연

③ 驅逐 – 어떤 세력 따위를 몰아서 쫓아냄

④ 波瀾 – 순탄하지 아니하고 어수선하게 계속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련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자어의 구성 한자와 실제 뜻을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捷徑은 '지름길'이라는 뜻이다. 驅逐은 사람이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고, 波瀾은 일이 순탄하지 않아 겪는 어려움이나 시련을 뜻한다. 順延은 정해진 기한이나 일정을 차례에 따라 뒤로 미루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捷徑은 '가까운 길' 또는 '지름길'이라는 뜻이므로 바르게 풀이하였다.
② X: 順延은 '순수한 인연'이 아니다. '순수한 인연'은 純粹한 因緣에 해당하며, 順延은 기한·일정 등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③ O: 驅逐은 어떤 사람이나 세력을 몰아서 쫓아내는 것을 뜻하므로 바르게 풀이하였다.
④ O: 波瀾은 일이 순탄하지 않아 계속되는 어려움이나 시련을 뜻하므로 바르게 풀이하였다.

오답 포인트

②는 順延의 '延'을 '인연(因緣)'의 緣과 혼동하게 만든 선지이다. 順延의 延은 '늘이다, 미루다'의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어 뜻풀이에서는 핵심 한자를 나누어 확인한다. '延'이 들어가면 '연장하거나 뒤로 미룸'의 의미인지 먼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捷徑은 지름길, 順延은 뒤로 미룸, 驅逐은 몰아냄, 波瀾은 시련이다.

NoteBase

문 5. 밑줄 친 관용구가 적절하게 쓰인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그는 복권에 당첨되어 요즘 배가 등에 붙었다.
ㄴ. 그 사람은 고지식해서 입에 발린 소리를 못한다.
ㄷ. 그녀는 군대에 간 아들이 눈에 밟혀 잠을 못 잔다.
ㄹ. 우리 엄마는 손이 떠서 일 처리가 빠르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밑줄 친 관용구의 실제 뜻을 문맥에 맞게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배가 등에 붙다’는 몹시 굶주리다라는 뜻이다. ‘입에 발린 소리’는 마음에도 없이 겉치레로 하는 말이다. ‘눈에 밟히다’는 어떤 사람이나 일이 잊히지 않고 마음에 걸리다라는 뜻이다. ‘손이 뜨다’는 일하는 동작이 굼떠 일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다라는 뜻이며, 일을 빨리 처리한다는 뜻은 ‘손이 빠르다’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배가 등에 붙었다'는 몹시 배가 고픈 상태를 뜻한다. 복권 당첨으로 큰돈이 생긴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배가 등에 붙었다' → 올바르게는 '돈방석에 앉았다' 등으로 고친다.

② O
ㄴ의 '입에 발린 소리'는 마음에도 없이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겉치레 말이다. 고지식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는 문맥에 적절하다.

③ O
ㄷ의 '눈에 밟히다'는 어떤 사람이나 일이 계속 생각나 마음에 걸리는 상태를 뜻한다. 군대에 간 아들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과 맞다.

④ X
ㄹ의 '손이 뜨다'는 일을 느리게 처리한다는 뜻이므로 '일 처리가 빠르시다'와 모순된다. 틀린 표현 '손이 떠서' → 올바르게는 '손이 빨라서'로 고친다.

오답 포인트

ㄹ에서 '손이 뜨다'를 '손이 빠르다'와 반대 의미로 혼동하기 쉽다. ㄱ도 '배가 등에 붙다'를 풍족한 상황에 쓰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상황에 쓴다는 점을 구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용구는 낱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관용구 전체의 굳어진 뜻을 먼저 확인한 뒤 문장의 상황과 대조하여 판단한다. 특히 문맥의 긍정·부정 방향과 관용구의 뜻이 일치하는지 살핀다.

암기 포인트

배가 등에 붙다=몹시 굶주리다, 눈에 밟히다=잊히지 않아 마음에 걸리다, 손이 뜨다=일이 느리다, 손이 빠르다=일이 빠르다.

NoteBase

문 6. 다음 글에서 설명한 '정의'에 가장 적절한 것은?

글에서 다루게 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방법을 정의라고 한다. 이때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을 피정의항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진술 부분을 정의항이라고 한다. 정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풀이해야 한다. 둘째,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개념이 정의항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정의항이 부정적인 진술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넷째, 대상에 대한 묘사나 해석은 정의가 아니다.

① 책이란 지식만을 보존해 두는 것이 아니다.

② 입헌 정치란 헌법에 의하여 행해지는 정치이다.

③ 딸기는 빨갛고 씨가 박혀 있는 달콤한 과일이다.

④ 문학은 언어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예술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정의의 조건, 즉 개념을 분명히 드러내고 정의하려는 말을 되풀이하거나 부정적으로 진술하거나 단순히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의는 어떤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른 대상과 구별되게 밝히는 진술이다. 정의항에는 피정의항을 되풀이하지 않고, 대상의 본질적 특징을 긍정적으로 제시한다. 묘사는 대상의 겉모습이나 일부 성질을 나열하는 설명이므로 정의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아니다'라는 부정적 진술로 대상을 규정하므로 정의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또한 책의 본질을 분명히 밝히지 못한다. 틀린 표현은 '지식만을 보존해 두는 것이 아니다'이며, 올바르게는 '책은 글이나 그림 등을 기록하여 엮은 읽을거리이다'처럼 긍정적으로 규정한다.
② X: '입헌 정치'를 '헌법에 의하여 행해지는 정치'라고 하여 피정의항의 구성 개념인 '헌법'과 '정치'를 되풀이한다. 틀린 표현은 '헌법에 의하여 행해지는 정치'이며, 올바르게는 '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치'처럼 그 내용으로 규정한다.
③ X: '빨갛고', '씨가 박혀 있는', '달콤한'은 딸기의 겉모습이나 성질을 나열한 묘사이다. 틀린 표현은 '빨갛고 씨가 박혀 있는 달콤한 과일'이며, 올바르게는 '딸기는 장미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또는 그 열매이다'처럼 대상의 종류와 본질적 성격을 밝혀야 한다.
④ O: 문학을 상위 개념인 '예술'로 제시하고, 언어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다는 구별되는 특징을 밝혀 문학의 개념을 분명히 규정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입헌 정치’의 구성 개념을 다시 사용한 되풀이 정의이다. ③은 딸기의 특징을 자세히 말했지만, 특징 나열인 묘사는 정의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의 선지는 ‘무엇인가’를 긍정적으로 밝히는지, 정의하려는 말 자체를 되풀이하지 않는지, 단순한 외양·성질의 묘사에 그치지 않는지를 차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의는 본질을 긍정적으로, 묘사는 특징을 나열하는 방식이다.

NoteBase

문 7. 다음 글의 주장에 어울리는 것은?

과학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객관성,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정확성과 엄밀성 때문이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거리를 둠으로써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사태 자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과학적 태도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하지만 물리화학, 경제학, 철학 등 다방면에서 학문적 업적을 이룬 마이클 폴라니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암묵적 지식이 늘 지식의 조건으로 전제되며, 통합하는 인격적 행위 없이 지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암묵적 지식이란 한 인격체가 성취한 지식으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성격을 띤다. 암묵적 지식의 한 측면을 우리는 못질하는 행동에서 파악할 수 있다. 우리 눈은 못대가리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망치를 든 손과 공간에 대한 보조 의식이 없다면 못질은 실패할 것이다. 이런 보조 의식이 암묵적 지식이다. 암묵적 지식은 검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완전한 검증을 거친 지식 체계가 가능하다는 객관주의의 지식 이념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①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지식의 가치

② 암묵적 지식이 갖는 한계와 비과학성

③ 과학의 객관성이 높이 평가받는 또 다른 이유

④ 완전한 검증을 거친 지식 체계가 갖는 주요한 의의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적 지식 개념을 통해 과학 지식의 완전한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에 제기한 의문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암묵적 지식은 개인이 경험과 실천 속에서 익혀 말이나 규칙으로 모두 드러내기 어려운 지식이다. 폴라니는 망치질에서 못만 의식해도 손과 공간에 대한 보조 의식이 함께 작용하듯, 과학 지식에도 이러한 인격적·암묵적 요소가 전제된다고 본다. 따라서 과학 지식은 완전히 검증된 객관적 체계만으로 성립한다는 관점에 비판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글은 과학적 지식의 성립에도 드러나지 않는 암묵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다양한 지식의 가치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X. 틀린 표현은 '암묵적 지식이 갖는 한계와 비과학성'이다. 글은 암묵적 지식을 과학 지식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제시한다. 올바르게는 '암묵적 지식이 과학 지식에 기여하는 가치'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과학의 객관성이 높이 평가받는 또 다른 이유'이다. 글은 통상적인 객관성·정확성의 평가 이유를 제시한 뒤, 폴라니가 그 완전한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한다. 올바르게는 '과학 지식의 완전한 객관성에 대한 비판'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완전한 검증을 거친 지식 체계가 갖는 주요한 의의'이다. 글의 결론은 완전한 검증을 거친 지식 체계가 가능하다는 객관주의적 지식 이념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바르게는 '완전한 검증만으로 성립하는 객관주의 지식 이념의 한계'이다.

오답 포인트

글 첫머리의 '과학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만 보고 ③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중심 주장은 역접 표현인 '하지만' 뒤에 제시된 폴라니의 비판과, 마지막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장 파악 문제에서는 도입부의 일반적 견해와 필자의 결론을 구분한다. '하지만', '그러므로' 뒤의 핵심 판단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설명한 개념이 무엇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지로 선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폴라니: 지식에는 말로 드러나지 않는 암묵적 지식이 전제되므로, 완전한 객관성만을 내세운 지식관은 한계가 있다.

NoteBase

문 8.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완하국(琉夏國) 함달왕(含達王)의 부인이 임신하였다.
㉠ 달이 차서 알을 낳았는데, 알이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 이름을 탈해(脫解)라 하였다. 바다를 따라 가락국에 왔는데, 키가 3척이요 머리 둘레가 1척이었다. 즐거이 궁궐에 나아가 왕에게 말하였다. "나는 왕의 자리를 뺏기 위해 왔소." 왕이 대답하였다. "㉡ 하늘이 나에게 명하여 왕위에 오르게 함은 장차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 함이다. 감히 하늘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자리를 내어 줄 수 없다. 또 감히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너에게 맡길 수 없다." 탈해가 "그렇다면 술법으로 겨루어 봅시다."라고 하자 왕이 "좋다."라고 하였다. ㉢잠깐 사이에 탈해가 매가 되자 왕은 독수리가 되고, 또 탈해가 참새로 화하자 왕은 새매로 변하였다. 이때 잠시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탈해가 본모습으로 돌아오자 왕 또한 그렇게 했다. 탈해가 드디어 엎드려 항복하며 "제가 술법을 겨루는 마당에서 ㉣독수리 앞의 매가 되고 새매 앞의 참새가 되었는데, 잡히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성인께서 살생을 싫어하신 인자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왕과는 자리를 다투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바로 절하고 나가 버렸다.
— 일연, 『삼국유사(三國遺事)』 중에서 —

① ㉠ 신비한 출생을 통해 탈해의 범상함을 강조한 표현이다.

② ㉡ 왕위는 인위적으로 획득되지 않는 것임을 강조한 표현이다.

③ ㉢ 탈해와 왕이 본래는 동물이었음을 강조한 표현이다.

④ ㉣ 탈해의 술법이 왕보다 뛰어남을 강조한 표현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설화의 비현실적 사건과 인물의 말·행동이 드러내는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비한 출생은 인물의 비범한 면모를 드러내는 설화적 장치이다.
천명은 왕위의 정당성을 하늘의 뜻에서 찾는 관념이며, ㄴ에서 남해왕은 이를 근거로 왕위를 넘길 수 없다고 말한다.
변신 장면은 인물들이 본래 동물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술법을 겨루는 비현실적 사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달이 차서 낳은 알에서 사람이 되었다는 ㄱ은 탈해의 신비한 출생을 제시한다. 틀린 표현은 '범상함'이며, 올바르게는 '비범함을 강조한 표현'이다.
② O. ㄴ에서 남해왕은 하늘이 자신에게 왕위에 오르게 한 까닭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왕위를 개인이 임의로 주고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태도를 드러낸다.
③ X. ㄷ은 탈해와 왕이 매·독수리·참새·새매로 변신하여 술법을 겨루는 장면이다. 틀린 표현은 '본래는 동물'이며, 올바르게는 '술법으로 동물로 변신한 인물들'이다.
④ X. ㄹ은 탈해가 독수리 앞의 매, 왕이 새매 앞의 참새가 되었지만 왕이 잡히지 않은 까닭을 성인의 인자함에서 찾는 말이다. 틀린 표현은 '탈해의 술법이 왕보다 뛰어남'이며, 올바르게는 '두 인물의 술법 우열은 단정할 수 없고 왕의 인자함이 부각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매와 참새의 관계만 보고 탈해가 우세하다고 단정하게 만든다. 그러나 본문은 왕이 잡히지 않은 이유를 왕의 인자함에 두므로, 이를 술법의 우열로 바꾸어 해석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설화의 알·변신 같은 비현실적 사건은 인물의 신비성이나 갈등을 드러내는 장치로 본다.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의 의미는 변신 자체보다 그 장면을 설명하는 서술과 인물의 발언을 근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알 출생은 비범함, 천명은 왕위의 정당성, 변신은 술법의 겨룸이다.

NoteBase

문 9. 외래어 표기 규정에 모두 맞는 것은?

① 브러쉬, 케익

② 카페트, 파리

③ 초콜릿, 셰퍼드

④ 슈퍼마켙, 서비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영어 외래어를 발음에 따라 적는 외래어 표기 규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는 원어의 철자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표준 발음과 외래어 표기 규정에 따라 적는다. 영어의 어말 /t/는 받침 ㅅ으로 적어 카펫, 마켓처럼 표기하며, /□/는 시로 적어 브러시, 셰퍼드처럼 표기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케이크'는 맞지만 '브러쉬'가 틀렸다. 영어 brush는 '브러시'로 적는다. 틀린 표현 '브러쉬' → 올바르게는 '브러시'이다.
② X: '파리'는 맞지만 '카페트'가 틀렸다. 영어 carpet은 '카펫'으로 적는다. 틀린 표현 '카페트' → 올바르게는 '카펫'이다.
③ O: chocolate은 '초콜릿', shepherd는 '셰퍼드'로 적는다. 두 표기가 모두 외래어 표기 규정에 맞는다.
④ X: '서비스'는 맞지만 '슈퍼마켙'이 틀렸다. 영어 supermarket은 '슈퍼마켓'으로 적는다. 틀린 표현 '슈퍼마켙' → 올바르게는 '슈퍼마켓'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브러쉬'와 ④의 '슈퍼마켙'은 실제로 널리 쓰이는 표기여서 헷갈리기 쉽다. 외래어 표기에서는 발음이 같은 종성이라도 임의로 ㅆ이나 ㅌ을 쓰지 않고 정해진 표기를 따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래어 표기 문제에서는 익숙한 철자보다 표준 표기를 먼저 확인한다. 특히 brush→브러시, carpet→카펫, market→마켓처럼 자주 틀리는 어말 표기를 대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브러시는 시, 카펫·마켓은 받침 ㅅ으로 적는다.

NoteBase

문 10. 다음 글과 뜻이 통하는 속담은?

君子之道 辟如行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卑 (* 辟는 譬와 같다)
— 「中庸」에서 —

① 절하고 뺨 맞는 일 없다.
② 급하면 부처 다리를 안는다.
③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다.
④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숭산이라.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먼 곳에 가려면 가까운 데서부터,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뜻과 같은 속담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시문은 '행원필자이(行遠必自邇), 등고필자비(登高必自卑)'로, 큰일이나 먼 목표도 가까운 곳·낮은 곳의 작은 시작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핵심 키워드는 '작은 시작'과 '단계적 출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절하고 뺨 맞는 일 없다'는 남에게 공손하게 대하면 해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다.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는 제시문의 뜻과 다르다. 틀린 연결 → 올바르게는 공손함의 이로움을 말하는 속담이다.
② X: '급하면 부처 다리 안는다'는 다급해지면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제시문의 단계적 출발과는 관련이 없다. 틀린 연결 → 올바르게는 다급한 처지에서의 행동을 말하는 속담이다.
③ O: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는 아무리 큰일도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먼 길은 가까운 곳에서, 높은 곳은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는 제시문과 통한다.
④ X: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숭산이라'는 앞으로 가기도 어렵고 물러서기도 어려운 난처한 처지를 뜻한다. 시작의 중요성을 말한 제시문과 다르다. 틀린 연결 → 올바르게는 진퇴양난의 처지를 말하는 속담이다.

오답 포인트

④에는 산과 이동의 표현이 있어 제시문의 '행원'·'등고'와 겉모습이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④의 핵심은 큰 목표를 향한 출발이 아니라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기 어려운 진퇴양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문 문장의 비유 대상보다 결론의 핵심 뜻을 먼저 잡는다. '먼 길·높은 곳' 뒤에 '가까운 곳·낮은 곳에서 시작'이 나오면 작은 시작, 단계적 실천을 뜻하는 속담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행원자이·등고자비 =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시의 '나'를 형상화한 표현이 아닌 것은?

나는 떠난다. 청동(靑銅)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振幅)의 ㉠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인종(忍從)은 끝이 났는가.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흑의 ㉡ 감방에서.

나는 바람을 타고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는 ㉢ 악기가 된다.

먹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雷聲)이 되어
가루 가루 가루의 ㉣ 음향이 된다.

— 박남수, 『종소리』 —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적 화자 '나'가 무엇으로 모습을 바꾸어 드러나는지를, 화자가 놓인 공간적 배경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형상화는 추상적이거나 직접 보이지 않는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이미지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 시에서 '나'는 새, 악기, 음향 등으로 변하며 모습을 드러낸다. 반면 '칠흑의 갑방'은 '나'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나'가 갇혀 있던 어두운 공간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진폭의 새'는 청동의 표면에서 날아가는 새의 이미지로 '나'를 구체화한 표현이다. '나를 형상화한 표현이 아닌 것'이라는 판단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나를 형상화한 표현이다.'

② O

'칠흑의 갑방'은 청동의 벽에 역사가 갇힌 어두운 갑방이라는 공간·상황을 나타낸다. '나'가 새·악기·음향처럼 어떤 모습으로 변한 것은 아니므로, '나'를 형상화한 표현이 아니다.

③ X

'악기'는 '나'가 천상에서 된 모습으로 제시되어 '나'를 형상화한다. '나를 형상화한 표현이 아닌 것'이라는 판단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나를 형상화한 표현이다.'

④ X

'음향'은 벼락이 되어 가루가 된 '나'의 마지막 모습을 직접 드러낸다. '나를 형상화한 표현이 아닌 것'이라는 판단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나를 형상화한 표현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칠흑의 갑방'도 강한 이미지이므로 화자의 모습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나'의 변신한 형상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감금의 공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이 '나'가 되어 간 대상인지, 아니면 '나'가 있는 장소·배경·상황인지 문장 속 서술어와 함께 판단한다. '새가 되어', '악기가 된다', '음향이 된다'처럼 '나'의 변화 결과가 제시되면 형상화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나의 변신은 형상화, 나를 가둔 곳은 배경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들 개개인이 벌이는 경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수단과 방법을 적절하게 제약하는 규칙을 도입했다. 이것이 법률 시스템이다. 법률 시스템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다양한 하위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헌법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개인들은 마음껏 남과 경쟁해도 된다. 다만,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다. 나는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남을 죽이거나 팔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속이거나, 그 밖에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다른 부당한 방법을 쓰지 않는 한 그렇다. 경쟁의 승자는 패자보다 더 많은 자원과 권력과 명예를 얻으며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① 민주공화국은 개인들에게 경쟁의 자유를 보장한다.

② 민주공화국에서는 법률 시스템을 통해 개인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한다.

③ 민주공화국에는 경쟁의 수단과 방법을 제약하는 법률 시스템이 있다.

④ 민주공화국에서 경쟁의 승자는 패자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민주공화국의 법률 시스템이 경쟁 자체를 만들어 내는지, 아니면 경쟁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그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민주공화국의 법률 시스템은 개인의 경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 수단과 방법은 제한하는 규범 체계이다. 경쟁의 발생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데서 비롯되며, 법률 시스템은 그 경쟁을 정당한 범위 안에 두는 역할을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제시문은 민주공화국이 국민 개개인이 벌이는 경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X. 틀린 표현은 '법률 시스템을 통해 개인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한다'이다. 제시문의 법률 시스템은 경쟁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경쟁의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제약하는 규칙이다. 올바르게는 '법률 시스템을 통해 경쟁의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여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이다.

③ O. 제시문은 경쟁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경쟁의 수단과 방법을 적절하게 제약하는 규칙을 법률 시스템이라고 설명하므로 적절하다.

④ O. 제시문은 경쟁의 승자가 패자보다 더 많은 자원·권력·명예를 얻어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보상'은 이와 같은 더 많은 자원·권력·명예를 포괄하여 표현한 말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법률 시스템의 기능을 '경쟁 유발'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제시문에서는 경쟁의 자유는 보장 대상이고, 법률 시스템은 부당한 경쟁 방법을 제한하는 장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서 제도나 규칙의 역할을 묻는 경우에는 '무엇을 보장하는가'와 '무엇을 제한하는가'를 나누어 확인한다. 본문에 없는 새로운 기능, 특히 '유발한다'와 같은 인과 관계를 덧붙인 선지는 경계한다.

암기 포인트

경쟁의 자유는 보장하고, 부당한 경쟁 수단은 법률로 제한한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의 논리적 오류와 같은 종류의 오류가 있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①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 화합한 사회에서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② 미확인 비행 물체(UFO)가 없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미확인 비행 물체는 존재한다.

③ 지금 서른 분 가운데 열 분이 손을 들어 반대하셨습니다. 손을 안 드신 분은 모두 제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④ A 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도 맛이 없고, B 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도 맛이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맛있는 사과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결론을 독립된 근거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결론과 사실상 같은 내용을 근거로 되풀이하는 순환 논증의 오류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순환 논증은 증명해야 할 결론을 전제에 이미 포함하거나 같은 뜻으로 되풀이하여 결론을 정당화하는 오류이다.
판단의 기준은 전제가 결론과 별개로 확인 가능한 근거인지이다.
무지에의 호소는 반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참이라고 결론내리는 오류이고, 성급한 일반화는 일부 사례만으로 전체를 단정하는 오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화합한 사회에서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뒷받침한다. 화합이 분열을 극복한다는 독립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제시문과 같은 순환 논증이다.
② X: 'UFO가 없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UFO의 존재를 결론내린다. 이는 반증이 없음을 존재의 증거로 삼는 무지에의 호소이다. 틀린 표현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 존재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없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한다고 결론낼 수 없다'이다.
③ X: 손을 들지 않은 사람을 모두 찬성자로 본다. 손을 들지 않은 이유에는 기권, 판단 보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과 찬성한다는 것은 같다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모두 제 의견에 찬성'이며, 올바르게는 '손을 들지 않은 사람의 의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이다.
④ X: A 지역과 B 지역의 사과만 맛이 없다는 관찰로 그해의 모든 사과가 맛없다고 단정한다. 이는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하는 성급한 일반화이다. 틀린 표현은 '올해는 맛있는 사과를 맛볼 수 없을 것'이며, 올바르게는 'A·B 지역 사과가 맛없다는 사실만으로 올해 모든 사과의 맛을 판단할 수 없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화합한 사회에 분열이 없다'는 문장이 그럴듯해 보여도, 바로 그것이 화합이 분열을 극복한다는 결론의 반복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②의 '입증되지 않았다', ③의 '모두', ④의 '올해는'은 각각 무지에의 호소, 의사 확인 없는 단정, 성급한 일반화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결론을 먼저 찾고, 전제가 그 결론을 빼더라도 별도로 성립하는 근거인지 확인한다. 전제가 결론을 다른 말로 되풀이할 뿐이면 순환 논증이다. 반증의 부재를 증거로 삼으면 무지에의 호소이고, 일부 사례에서 전체를 단정하면 성급한 일반화이다.

암기 포인트

결론을 결론으로 증명하면 순환 논증, '증명 못 했으니 참'이면 무지에의 호소, 일부로 전체를 말하면 성급한 일반화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한 것은?

조선 시대에 금속활자는 희귀한 물건이었고, 오로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었다. 조선 전기는 물론이고 조선 후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민간에도 금속활자가 몇 종 있었지만 극소수 양반가의 소유였을 뿐이다. 그것을 제외하면, 금속활자는 온전히 국가의 소유였다. 왜 국가가 금속활자를 독점했던 것일까?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고안에는 상업적 동기가 작용했다. 당시 독일에서는 라틴어 문법 서적 등 인쇄물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많았고, 그 수요는 주로 목판 인쇄에 의해 충족되고 있었다. 구텐베르크는 인쇄물의 생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속활자 인쇄술을 고안했던 것이다. 즉 서양의 인쇄술은 상업적 목적으로 민간의 필요에 의해 민간에서 제작되었다. 반면 조선의 금속활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가에서 제작한 것이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어떻게 널리 전파될 수 있었을까? 조선에서는 왜 국가가 금속활자 인쇄술을 독점했을까? 여기에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요인은 표의 문자인 '한자'와 표음 문자인 '라틴 자모' 사이의 차이 때문이다. 조선조의 금속활자는 한자 활자가 대부분이었다. 극단적으로 말해 한문으로 쓰인 책을 어떤 장애도 없이 인쇄하자면 한자 수만큼이나 많은 활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더욱이 자주 쓰이는 글자는 더 많은 수가 필요하니, 실제 필요한 한자 활자는 한자 전체의 수에 몇을 곱해야 할 것이다.

금속활자는 결코 대량 인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목판은 일단 새겨지기만 하면 수요가 많은 책을 복제하는 데 유리했지만, 새로운 수요에 재빨리 대응하기에는 속도가 너무나 더디었다. 또한 책의 종 수만큼 별도의 목판을 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속활자는 새로운 수요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다시 말해 다품종 소량 생산이 조선 금속활자의 존재 의의였다.

① 문자의 성격 차이가 금속활자 인쇄술의 전파에 영향을 미쳤다.

② 일반적으로 조선의 목판 인쇄는 새로운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③ 서양과 조선에서의 금속활자 인쇄는 서적의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을 목적으로 하였다.

④ 서양에서는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금속활자로 인쇄하였지만, 조선에서는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기 위하여 금속활자로 인쇄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양과 조선의 금속활자 인쇄가 만들어지고 활용된 목적, 그리고 문자 체계가 인쇄술의 확산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서양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민간의 많은 수요를 상업적으로 충족하고 생산 가격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조선의 금속활자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제작했으며, 한자마다 활자가 필요하고 자주 쓰이는 글자는 여러 개가 필요하여 대량 인쇄에 적합하지 않았다. 목판은 같은 책을 많이 복제하는 데, 금속활자는 새로운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했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문은 금속활자 인쇄술의 전파 차이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인으로 표의문자인 한자와 표음문자인 라틴 자모의 차이를 든다. 한문 책을 인쇄하려면 많은 종류의 한자 활자가 필요하므로, 문자 성격의 차이가 인쇄술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은 옳다.

② X. 틀린 표현은 '새로운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이다. 지문은 목판이 새로운 수요에 재빨리 대응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더뎠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조선의 목판 인쇄는 같은 책을 많이 복제하는 데 유리했지만, 새로운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는 어려웠다'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서적의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을 목적으로 하였다'이다. 지문은 조선 금속활자가 결코 대량 인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다품종 소량 생산에 의의가 있었다고 한다. 올바르게는 '서양은 민간 수요를 충족하고 가격을 낮추려 했고, 조선 금속활자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했다'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조선에서는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기 위하여'이다. 지문에서 조선의 금속활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제작한 것이며,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서양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민간이 금속활자 인쇄술을 제작했고, 조선에서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금속활자를 제작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목판의 장점인 '같은 책의 대량 복제'를 '새로운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③은 조선 금속활자의 핵심인 '다품종 소량 생산'을 '대량 생산'으로 뒤바꾸었고, ④는 국가 제작의 목적을 '국가의 필요'가 아닌 '경제적 이익의 독점'으로 바꾸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쇄 방식 비교 지문에서는 제작 주체와 목적, 문자 체계에 따른 활자 수, 대량 복제와 새 수요 대응 중 어느 기능에 유리한지를 나누어 확인한다. 특히 목판은 동일 책의 대량 복제, 조선 금속활자는 새 수요에 대응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대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목판은 같은 책을 많이, 조선 금속활자는 여러 책을 적게·빠르게 만든다. 한자는 활자 종류가 많아 대량 인쇄에 불리하다.

NoteBase

문 15. 주민들의 토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민 1: 도시 사람들이 가끔씩 들러 전원생활을 맛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농촌 체험 마을로 키워 마을의 소득원을 늘린다면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입니다.
주민 2: 도시로 나갔던 젊은이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의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주민 3: 우리 마을은 젊은 귀촌자들이 원주민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많이 찾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로 잘 교류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① 마을의 소득 향상 방안
② 마을의 관광객 유치 방안
③ 어린이를 위한 교육 환경의 개선 방안
④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마을 조성 방안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여러 주민의 의견을 모두 아우르는 토의의 중심 주제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토의 주제는 한 사람의 세부 제안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공통 목표를 포괄해야 한다. 주민 1은 소득과 체험 마을, 주민 2는 교육 환경, 주민 3은 귀촌자와 원주민의 교류를 말한다. 이 의견들은 모두 젊은이들이 정착하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방안으로 묶인다.

선지별 해설

① X: 주민 1이 말한 농촌 체험 마을 조성과 연결되는 부분 주제이다. 그러나 교육 환경과 주민 간 화목이라는 다른 의견을 담지 못한다. '마을의 소득 향상' → 전체 토의 주제로는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이 알맞다.
② X: 관광객 유치는 주민 1의 농촌 체험 마을 구상에 포함될 수 있는 한 방안일 뿐이다. 주민 2의 교육 환경, 주민 3의 주민 화합과는 직접 포괄 관계가 없다. '마을의 관광객 유치' →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마을 조성'으로 넓혀야 한다.
③ X: 어린이를 위한 교육 환경은 주민 2의 핵심 주장이다. 하지만 주민 1의 소득원 확대와 주민 3의 귀촌자·원주민 간 교류를 포함하지 못한다. '어린이를 위한 교육 환경의 개선' →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이 전체 주제에 맞다.
④ O: 소득원 확대, 자녀 교육 환경 마련, 귀촌자와 원주민의 화목은 모두 젊은이들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조건이다. 세 주민의 의견을 가장 넓게 포괄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③은 각각 주민 1·2의 일부 의견만 제목으로 만든 선택지이다. 특정 발언의 핵심어가 보인다고 바로 고르면 다른 주민의 의견이 빠지는 함정에 걸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발언에서 해결하려는 문제와 제안을 한 줄씩 정리한 뒤, 모든 발언을 빠짐없이 포함하는 가장 상위의 목표를 고른다. 한 발언에만 들어 있는 내용이면 전체 토의 주제가 아니다.

암기 포인트

토의의 중심 주제는 부분 제안이 아니라 모든 의견을 묶는 공통 목표이다.

NoteBase

문 16. 밑줄 친 안긴 문장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나는 ㉠내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중원 고구려비를 조사하였다. ㉡중원 고구려비는 장수왕이 남한강 유역의 여러 성을 공략하고 개척한 후에 세운 기념비라고 한다. 5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5세기 후반이면 지금으로부터 1,500년 이전에 세워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중원 고구려비에 대한 내용을 찾았다. 이 설명은 ㉢중원 고구려비가 이제 나라의 재산임을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다.

① ㉠ 관형절
② ㉡ 인용절
③ ㉢ 서술절
④ ㉣ 부사절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안긴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맡는 기능에 따라 관형절·인용절·명사절·부사절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형절은 체언을 꾸며 주는 안긴 문장이다. 인용절은 '라고/고' 등을 통해 말이나 생각의 내용을 인용하는 안긴 문장이다. 명사절은 '-ㅁ/음' 등으로 끝나 문장에서 명사처럼 주어·목적어 등의 기능을 한다. 부사절은 용언을 꾸며 목적·이유·조건 등의 뜻을 더한다.
'관심이 많았던'은 뒤의 '중원 고구려비'를 꾸미고, '재산임을'은 '알 수'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의 '내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은 뒤의 체언 '중원 고구려비'를 꾸미므로 관형절이다.
② O: ㉡의 '중원 고구려비는 … 기념비'는 뒤의 '라고 한다'에 인용되어 있으므로 인용절이다.
③ X: ㉢의 '중원 고구려비가 이제 나라의 재산임을'은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에서 '알 수'의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명사절이다. 틀린 표현은 '서술절'이며, 올바르게는 '명사절'이다.
④ O: ㉣의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은 '보여주고 있다'를 꾸미며 목적의 뜻을 나타내므로 부사절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절 안에 '중원 고구려비가'라는 주어와 '재산이다'라는 서술 관계가 있어 서술절처럼 보이지만, 끝에 '-ㅁ'과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전체가 목적어가 된다. 따라서 명사절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안긴 문장의 끝과 뒤의 말을 함께 확인한다. 체언을 꾸미면 관형절, '라고/고'로 인용되면 인용절, '-ㅁ/음' 뒤에 조사가 붙어 명사 기능을 하면 명사절, 뒤의 용언을 꾸미면 부사절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ㅁ/음+조사'는 명사절, '-도록'은 부사절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7. 밑줄 친 ㉠과 뜻이 같은 한자는?

當時예 ㉠녀던 길흘 뎟 히롤 ᄇᆞ려 두고
어듸 가 ᄃᆞ니다가 이제아 도라온고
이제아 도라오나니 년듸 ᄆᆞᅀᆞᆷ 마로리

靑山은 엇데ᄒᆞ야 萬古애 프르르며
流水는 엇데ᄒᆞ야 晝夜애 긋디 아니ᄂᆞᆫ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호리라
— 이황, 「도산십이곡」 중에서 —

① 遊
② 讀
③ 歌
④ 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전 시가의 중세 국어 어휘를 현대어로 풀이한 뒤, 그 뜻에 맞는 한자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밑줄 친 '너던'은 '다니던'이라는 뜻이다. 고어는 먼저 현대어 뜻으로 바꾸고, 그 뜻을 나타내는 한자를 대응시킨다.
行은 '가다·다니다'라는 뜻이며, 이 문맥에서는 '다니던 길'의 '다니다'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遊는 '놀다, 유람하다'라는 뜻이다. 밑줄의 '너던'은 '다니던'이므로, 틀린 한자 遊 → 올바르게는 行이다.
② X. 讀은 '읽다'라는 뜻이다. '너던'의 '다니다'와 관련이 없으므로, 틀린 한자 讀 → 올바르게는 行이다.
③ X. 歌는 '노래하다'라는 뜻이다. '너던'의 뜻과 다르므로, 틀린 한자 歌 → 올바르게는 行이다.
④ O. 行은 '가다, 다니다'라는 뜻이다. '너던 길'은 '다니던 길'이므로 밑줄의 뜻과 같다.

오답 포인트

① 遊도 이동하거나 유람하는 뜻으로 떠올릴 수 있어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너던'은 문맥상 '다니던'이며, '가다·다니다'를 직접 나타내는 行을 골라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어 어휘의 한자 대응 문제에서는 주변 문장을 이용해 먼저 현대어 뜻을 확정한다. 그다음 선택지 한자의 기본 뜻을 비교하여, 문맥의 동작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한자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너던’ = ‘다니던’, 다니다·가다 = 行이다.

NoteBase

문 18. 위의 시조를 읽고 쓴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當時예 ㉠녀던 길흘 멋 히롤 ᄇᆞ려 두고
어듸 가 ᄃᆞ니다가 이제아 도라온고
이제아 도라오나니 년듸 ᄆᆞᄋᆞᆷ 마로리

靑山은 엇뎨ᄒᆞ야 萬古애 프르르며
流水는 엇뎨ᄒᆞ야 晝夜애 긋디 아니ᄂᆞᆫ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호리라
– 이황, 「도산십이곡」 중에서 –

ㄱ.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 거리를 찾아가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다.
ㄴ. 자연을 경시하고 개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현대인들은 자연을 섬세히 관찰하여 그 속에서 교훈을 이끌어내는 화자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ㄷ.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며 앞으로의 다짐을 하는 화자의 태도는 오늘날 앞만 보며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인 것 같다.
ㄹ. 나도 화자처럼 이전까지의 삶을 반성하여 앞으로 한눈팔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과거에 잠시 버려 두었던 자신의 길로 돌아온 화자가 청산과 유수의 영속성을 본받아 그 길을 꾸준히 이어 가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화자는 '너던 길'을 버려 두고 다른 곳을 떠돌다가 다시 그 길로 돌아온 자신의 지난 모습을 성찰한다. 청산은 만고에 푸르고 유수는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자연물로,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변함없음과 지속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시의 지향은 새로운 도전을 찾아 길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돌아온 자신의 길을 한결같이 지키는 데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ㄱ X: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 거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작품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화자는 여러 길을 새로 찾는 인물이 아니라, 버려 두었던 '너던 길'로 돌아와 그 길을 지속하려 한다. 틀린 표현 '새로운 도전 거리를 찾아가는' → 올바르게는 '자신이 돌아온 길을 변함없이 이어 가려는'이다.

② ㄴ O: 청산과 유수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그 변함없는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치지 말자'고 다짐한다. 자연을 단순한 개발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교훈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라는 감상이 가능하다.

③ ㄷ O: 첫 연에서 과거에 자신의 길을 버리고 떠돌았던 일을 돌아보고, 마지막 연에서 자연처럼 만고상청하겠다고 앞으로의 다짐을 드러낸다. 과거 성찰과 미래 지향이 함께 나타난다.

④ ㄹ O: 화자는 과거에 자신의 길을 떠났다가 돌아온 뒤 그 길을 지속하겠다고 결심한다. 이를 학문에 전념하려는 다짐으로 연결한 감상은 화자의 태도와 부합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떠돌았다'는 사실을 새로운 도전을 계속 추구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작품에서 떠돎은 긍정할 행동이 아니라 돌아온 뒤 성찰하는 과거이며, 핵심은 청산과 유수처럼 그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 시가에서 화자가 자연물의 변하지 않음이나 끊이지 않음을 바라볼 때에는 그 속성에 자신을 견주어 지속·절개·한결같음의 다짐을 드러내는지 확인한다. 과거의 방황은 현재의 결심과 대비되는 소재인지 함께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청산은 만고에 푸르고 유수는 밤낮으로 흐른다. 화자는 자연의 영속성을 본받아 돌아온 자신의 길을 그치지 않으려 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때 변산(邊山)에 도적 떼 수천 명이 몰려 있었는데, 지방 관청에서 군사를 풀어 잡으려 하여도 잡을 수 없었다. 도적 떼 또한 감히 나와서 노략질을 못하여 바야흐로 굶주리고 곤란하였다. 허생(許生)이 그들을 찾아갔다.
(중략)
허생이 물었다. “자네들은 아내가 있는가?” 도적들이 답하였다. “없습니다.” “자네들은 밭이 있는가?” 도적들이 웃으며 말하였다. “아내가 있고 밭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되겠습니까?” 허생이 “그렇다면 왜 장가를 들어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는가? 살아서 도적이란 이름을 면하고, 거할 때 가정의 즐거움을 누리고, 나가도 쫓기고 잡혀 갈 걱정 없이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입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터인데.”라고 하였다. 도적들이 “어찌 그런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돈이 없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 박지원, 『허생전』 중에서 —

① 人不知而不慍
② 無恒產無恒心
③ 人無遠慮必有近憂
④ 良藥苦於口而利於病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허생이 도적에게 제시한 ‘안정된 생업과 가정생활’의 가치를 고사성어의 뜻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은 일정한 생업이나 재산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지니기 어렵다는 뜻이다. 글에서 허생은 도적도 아내를 맞아 농사를 지으면 도적질의 괴로움 없이 안정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인부지이불온(人不知而不慍)은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글의 핵심인 생업의 안정과는 관련이 없다. 관련된 말로 고치면 '생업이 안정되어야 마음도 안정된다'는 뜻의 ②가 적절하다.

② O: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은 안정된 재산·생업이 없으면 안정된 마음을 지니기 어렵다는 뜻이다. 허생은 장가들고 농사를 지어 생업을 얻으면 도적질을 그만두고 평온하게 살 수 있다고 하므로 글의 내용과 가장 가깝다.

③ X: 인무원려필유근우(人無遠慮必有近憂)는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으면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는 뜻이다. 글은 장래 대비의 필요성이 아니라 도적의 생계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관련 판단을 고치면 '원려의 유무'가 아니라 '항산의 유무'가 기준이 된다.

④ X: 양약고어구이이어병(良藥苦於口而利於病)은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다는 뜻이다. 괴로운 충고나 처방의 유익함과 관련된 말로, 허생이 말한 안정된 생업의 가치와는 거리가 있다. 관련된 표현으로 고치면 생업과 마음의 관계를 말한 ②가 알맞다.

오답 포인트

③은 '근심'이라는 말 때문에 도적의 불안한 처지와 연결해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허생의 해결책은 미래의 걱정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농사와 가정으로 지속적인 생업을 갖게 하자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사성어 관련 문제에서는 글의 핵심 상황을 먼저 한 문장으로 요약한 뒤, 각 성어가 말하는 원인과 결과를 비교한다. 이 글은 '안정된 생업이 있으면 도적질을 벗어난다'가 핵심이다.

암기 포인트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선다: 안정된 생업 → 안정된 마음.

NoteBase

문 20. (가)~(다)의 자료를 이용하여 글을 쓰기 위해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최근 홈쇼핑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홈쇼핑에 대한 불만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가장 많은 불만은 TV 방영 내용과 실제 상품이 상이하다는 것으로 전체의 46.5%이며, 다음으로는 상품의 품질 불량이 25%, 색상, 사이즈 등 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달된 것이 12%에 달했으며, 이외에도 교환·반품 등 AS 지연 등이었다.

– ○○○ 신문 기사

(나) 홈쇼핑 업계 현황

(단위 : %)

	2010년	2012년	2014년
홈쇼핑 업체 수	100	260	520
홈쇼핑 매출 총액	100	135	157
홈쇼핑 업체별 수익률	100	87	76

– 2015년 국가 경제 현황 지표

(다)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한 동기

이유	빈도(%)
우연히 프로그램을 보다가 필요할 것 같아서	42.8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편리해서	30.1
무이자 할부, 사은품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20.2
시중에서는 좀처럼 구하기 힘든 물건이어서	6.9

– 소비자 보호원

① (가)와 (나)를 활용해서 홈쇼핑 소비 증가 때문에 무분별한 쇼핑 중독자가 양산되고, 이로 인하여 가정불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② (가)와 (나)를 활용해서 최근 홈쇼핑 구매가 증가하면서 업체가 많이 생겨났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자의 불만과 업체의 수익 악화를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③ (나)와 (다)를 활용해서 소비자의 충동구매, 그리고 홈쇼핑 업체 수 증가에 의한 업체의 수익 악화를 홈쇼핑의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④ (나)와 (다)를 활용해서 홈쇼핑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에게는 상품 구매 전 충분한 정보를 탐색하도록 권유하고, 업체에는 과잉 경쟁을 자제하도록 촉구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사·업계 현황표·구매 동기 조사에서 확인되는 사실만을 근거로 글쓰기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자료해석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가)에서 홈쇼핑 이용 증가와 소비자 불만의 내용·비율을 확인한다.
2. (나)에서 업체 수, 매출 총액, 업체별 수익률의 증감 방향을 구분한다.
3. (다)에서 구매 동기의 빈도를 확인한 뒤, 선지가 자료에 없는 원인이나 결과를 덧붙였는지 판단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가)는 홈쇼핑 이용자와 불만 건수가 증가하고, 방송 내용과 실제 상품의 차이(46.5%), 품질 불량(25%), 주문과 다른 상품 배송(12%) 등이 불만 사유임을 제시한다. (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업체 수가 100에서 520으로 늘고 업체별 수익률이 100에서 76으로 낮아졌음을 보인다. (다)는 우연히 프로그램을 보다가 필요할 것 같아 구매한 경우가 42.8%로 가장 높음을 보인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와 (나)에는 홈쇼핑 불만 증가, 업체 수 증가, 업체별 수익률 하락은 제시되어 있지만, '무분별한 쇼핑 중독자가 양산된다'거나 '가정불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은 없다. 틀린 표현인 '쇼핑 중독자가 양산되고, 가정불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 올바르게는 '홈쇼핑 이용 증가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늘고, 업체 수 증가와 함께 업체별 수익률이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난다'이다.
② O. (가)의 소비자 불만 증가와 (나)의 매출 총액 증가·업체 수 증가·업체별 수익률 하락을 활용한 내용이다. 홈쇼핑 시장 확대가 소비자 불만과 업체 수익성 악화라는 문제를 함께 낳는다는 글의 주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O. (다)에서 '우연히 프로그램을 보다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구매한 비율이 42.8%로 가장 높아 충동구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나)에서는 업체 수가 100→260→520으로 늘고 업체별 수익률이 100→87→76으로 낮아져 업체 수 증가와 수익 악화를 연결할 수 있다.
④ O. (다)의 충동적 구매 동기는 구매 전 정보 탐색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나)는 업체 수가 매출 총액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동안 업체별 수익률이 하락했음을 보이므로, 과잉 경쟁을 줄이자는 제안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처럼 자료에 제시된 '불만 증가'를 '쇼핑 중독'과 '가정불화'라는 사회 문제로 확대하면 안 된다. 자료 활용 글쓰기에서는 자료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해석은 가능하지만, 근거 없는 구체적 원인·결과를 덧붙일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의 문장·수치·조사 항목을 하나씩 찾는다. 대응 근거가 없거나 자료에 없는 새로운 원인·결과가 추가되면 부적절한 활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료 활용의 기준은 '자료에 있는 사실 + 그 사실에서 가능한 해석'이며, 자료 밖의 단정적 인과는 오류이다.

NoteBase